

태명 짓기의 실태 및 확산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강 회 숙
(조선대학교)

Abstract

Kang Hui-suk. 2012. A Sociolinguistic Analysis of Fetus Naming and Its Diffusio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0(2). pp. 33-61 . This study attempted a sociolinguistic analysis on the fetus naming and its diffusion as a new custom.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48 first-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175 young children from nurseries and 423 parents who are living in Gwangju and Damyang in Jeonna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ypes of fetus naming and naming principles were analysed and it was discovered that most of fetus names were Korean, not Chinese, such as bokdeongi, teunteuni or ttolttori while real names were usually Chinese.

Real names were made by parents or name experts in consideration of Saju or meanings of names after babies were born. However, fetus names were given by their parents in the early or middle periods of pregnancy.

As a result of examining how many children had fetus names in each class, it was discovered that 43.5% of the first graders had fetus names and 76.9% of young children in nurseries had them. It shows that the custom of fetus naming is expanding very fast and such expansion was found both in urban and rural areas.

When motives to give fetus names were analysed, it was discovered that parents intended to talk to their babies calling their names every day, thinking the fetus are lives with personality. They believed that when names are called frequently, the meanings of the names can be achieved. 66.5% responded that fetus names are necessary.

Also, parents felt babies exist through fetus names. The names were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지원사업(공동연구)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과제번호 NRF-2011-32A-A00061).

means of conversation and worked to enhance friendliness and rapport between parents and their babies. The names gave helps to prenatal care as well as delivered what parents expect to the babies, enhanced rapport between parents and babies, removed anxiety of pregnancy and added happiness to their life.

Keywords: fetus, fetus naming, prenatal care, naming, name experts, linguistic innovation, diffusion of language change

1. 들어가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부 사회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언어문화에서는 한 개인의 생애 주기와 관련하여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 관례였다. 박현순(1991)에 따르면, 전통사회에서는 본명 외에도 태어난 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까지 사용되었던 아명(兒名)에서부터 관례를 치르고 난 뒤에 주어지는 자(字), 본명이나 자 이외의 호(號), 죽은 뒤에 공덕을 칭송하여 붙여지는 시호(諡號)나 묘호(廟號)¹⁾ 등의 이름이 있었다. 이러한 이름들을 작명 시기, 작명자 및 작명 원리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인 이름의 유형

이름	작명 시기	작명자	작명 원리	비고
아명(兒名)	유년기	부형	태몽과 관련하여 짓거나 액땀을 바라는 의미로 친하게 지음.	
본명(本名)	성장 후	"	자녀에 대한 부형의 소망을 담아 지음.	
자(字)	관례(冠禮) 후 (15세~20세)	친구, 스승	본명의 뜻을 부연 설명하거나 보완, 또는 같은 뜻을 지닌 글자를 씀.	본명과 함께 짓기도 함.
호(號)	중년 이후	본인	거처하는 서재(書齋)의 이름이나 지명, 좌우명 등을 반영하여 지음.	
시호(諡號)	사후	나라	시법(諡法)에 따라 일생의 행적을 반영하여 지음.	조정 대신들이 주도.
묘호(廟號)	사후	나라	"	임금 사후, 조정 대신들이 주도

1) 임금이 죽은 뒤에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붙인 이름.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통 사회에서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여러 가지였으며, 작명 시기며 작명자, 작명 원리 또한 상당히 다양하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문학이나 서예와 같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일부 연예인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이름, 곧 본명만을 가지고 있어 이름에 관한 한 전통적인 언어문화가 계승되지 못하고 있음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기가 아직 산모의 배 속에 있을 때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짓는 배냇이름, 곧 태명(胎名)이 젊은 부부들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한국인 이름 짓기의 새로운 풍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이름 유형에 속하는 태명이 언제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한 근거는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웹문서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태명에 대한 기록들을 토대로 미루어 보면, 태명이 약 10여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 또한, 언제부터인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기 연예인들이나 스타급 운동선수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태명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보면, 태명 짓기가 그러한 사회 계층을 중심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한데, 다음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태명의 예이다.

- (1) ㄱ. 김희선(배우): 잭팟³⁾
 ㄴ. 권상우, 손태영(배우): 루키⁴⁾
 ㄷ. 송준근(개그맨): 힘찬이
 ㄹ. 권지관, 김경아(개그맨): 멧쟁이
 ㅁ. 이수근(개그맨): 일박이

2) 예컨대, <RAINBOW, 공예야 나랑 놀까>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의 내용 가운데 2007년 4월 2일자 기록에 따르면, 당시 6살이던 아들이 태어나던 시기에는 태명이 없었지만, 몇 년 사이에 태명을 지어서 부르는 것이 유행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미루어 보면, 태명이 2001년~2007년 사이에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주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2000년대 이전에 태어난 중학생들은 태명이 거의 없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들부터는 태명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간혹 나타나기 시작한다. 연령에 따라 태명의 보유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우리 인생의 대박이라는 의미를 지닌 태명이라고 한다.

4) 권상우, 손태영 부부는 태명 '루키'와 발음이 유사한 이름 '룩희'를 태어난 아이의 본명으로 삼기도 하였다.

비. 유중일(프로야구감독): (유)격수

스. 변정민(텔런트): JJ

위의 예에서 보듯이,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신분을 지닌 이들이 너도나도 태명을 짓고 있으며, 이러한 태명은 호적에 등재하는 본명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작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힘찬이, 멋쟁이’ 등 아이에 대한 부모의 소박한 염원을 담은 고유어가 쓰이거나, ‘썩팻’이나 ‘루키’ 등의 외래어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된 기쁨을 표현하는 한편, ‘일박이’,⁵⁾ ‘유격수’ 등 부모가 하는 일 또는 직업과 관련되거나 ‘JJ’처럼 부모 이름의 이니셜을 따는 방식으로 태명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태명 짓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태명이 어느 정도나 확산되고 있는가를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과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1~3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태명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접근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는 태명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 학술적 성과 외에 지극히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태명 짓기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하나의 언어문화로서 사회언어학적 접근과 조명이 필요한 대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은 2012년 5월과 8월 약 두 달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5월에는 먼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태명 보유 실태를 조사한 후 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거쳤으며,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 비교 분석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1~3세 유아의 태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지점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담양군 두 지역이다. 조사지점을 두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태명 짓기와 같은 일종의 언어 개신⁶⁾이 대도시에 해당하는

5) ‘일박이’는 개그맨 이수근 씨가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1박 2일> 촬영 중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어 지은 태명이다.

6)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 개신’은 <표 1>에 제시한 한국인의 전통적인 이름의 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서 태명이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것을 가리킨다. ‘언어 개신’

광주광역시에서와 군 단위 혹은 농촌 지역인 담양 지역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⁷⁾

본고의 전제가 되는 언어적 가설 가운데 하나는 태명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언어 개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지역에서와 군 단위 지역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가설이 실제 언어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1~3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자료 수집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것은 7~8세 정도의 나이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4~7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유아의 태명 짓기가 어느 정도나 차이를 보이는가를 통해 태명 짓기라는 언어 개신이 최근 들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였다.⁸⁾ 표본의 유형 및 크기를 조사 지점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 ‘언어 변화’는 엄밀하게 구별되는 것으로서, ‘언어 개신’은 일정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언어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화자의 언어 행동이 해당 언어의 체계에 반영되는 경우에 ‘언어 변화’가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언어 개신’과 ‘언어 변화’의 구분에 대해서는 J. Milroy(1992) 제6장 참조.

- 7) 조사 대상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봉선동 소재 J초등학교와 문화동 소재 M초등학교를 비롯한 각종 어린이집을, 담양 지역의 경우, 담양 읍내의 담양 N초등학교와 E어린이집,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소재의 D초등학교와 D 어린이집을 선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도대로 대도시와 군 지역 또는 농촌 지역에서의 이름 및 태명의 실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자체적으로는 보육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읍내나 면 단위에 소재해 있는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에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8) 본 연구의 관심이 만일 태명 짓기라는 일종의 언어 개신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촉발 문제(actuation problem)에 있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이전 시기부터 2000년대 시기에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정밀한 자료 조사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언어 개신의 확산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데 있었는바, 필자의 사전 조사 결과 절반 정도가 태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태명 보유 실태를 조사한 후, 이러한 양상이 최근에 태어난 1~3세 유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밝힌다.

<표 2> 표본의 유형 및 크기

구분	광주						담양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N	%	N	%	N	%	N	%	N	%	N	%
초등학교 (7-8세)	85	49.4	87	50.6	172	100.0	36	47.4	40	52.6	76	100.0
어린이집 (1-3세)	53	48.6	56	51.4	109	100.0	28	42.4	38	57.6	66	100.0
계	138	49.1	143	50.9	281	100.0	64	45.1	78	54.9	142	100.0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표본은 광주 지역 281명, 담양 지역 142명을 합하여 모두 423명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 248명, 어린이집 175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202명, 여성 221명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독립 변수로 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전산코드화 과정을 거쳐 SPSS 17.0을 이용한 통계 분석을 하였다. 사용한 분석 기법은 빈도 분석, 교차 분석,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등 세 가지이다. 상관관계 분석은 조사 항목 가운데 부모의 연령과 직업을 변수로 상관 계수(r)와 유의도(p)를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모두 14개이며, 이를 조사 범주와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설문조사 범주 및 내용

조사 범주	조사 내용	문항	비고
이름의 유형 및 작명 원리	이름의 유형	1	부모의 연령과 직업과의 상관관계 분석
	이름의 어종	2	
	이름의 의미	3	
	작명 시기	4	
	작명자	5	
	작명 동기	6	

태명의 유형 및 작명 원리	태명 유무	7	
	태명의 유형 및 의미	8	
	작명 시기	9	
	작명자	10	
	작명 동기	11	
	본명과의 관련 여부	12	
태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태명의 필요성	13	
	태명의 이점	14	

<표 3>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본 연구를 위해 이루어진 설문조사 범주는 이름(본명)의 유형 및 작명 원리, 태명의 유형 및 작명 원리, 태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 크게 세 가지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태명의 유형과 작명 원리, 이에 대한 부모의 언어태도 등에 놓여 있지만, 본명의 유형 및 작명 원리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된 것은 본명과 태명을 대조함으로써 두 가지 이름의 유형 및 작명 원리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려는 의도에서였다.

3. 태명의 유형 및 작명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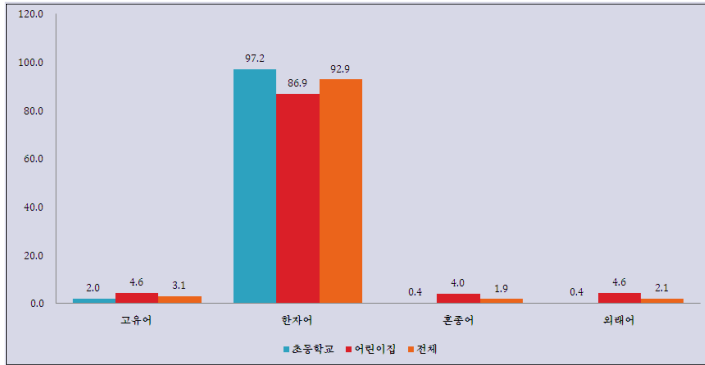
3.1. 이름(본명)의 유형 및 작명 원리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태명의 유형 및 작명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 대상 이름(본명)의 유형 및 작명 원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항 1, 2>는 조사 대상 이름의 어종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었는바, 조사 대상자 423명의 본명을 어종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이름의 어종별 분포

구분	초등학교(7-8세)		어린이집(1-3세)		계	
	N	%	N	%	N	%
고유어	5	2.0	8	4.6	13	3.1
한자어	241	97.2	152	86.9	393	92.9

혼종어	1	0.4	7	4.0	8	1.9
외래어	1	0.4	8	4.6	9	2.1
계	248	100.0	175	100.0	423	100.0



[그림 1] 이름의 어종별 분포

위의 <표 4>와 [그림 1]을 보면, 조사 대상 이름의 어종은 한자어가 9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고유어(3.1%)>외래어(2.1%)>혼종어(1.9%)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름의 어종 가운데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고유어를 비롯한 나머지 어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한 것은 한자어 이름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다만, 이름의 어종별 빈도를 학교 급별로 살펴보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에 비해 어린이집 유아 이름의 경우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나머지 어종의 이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유아 이름의 어종이 좀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¹¹⁾

9) 혼종어라 함은 이름의 구성 방식이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등 서로 다른 어종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이름을 말한다.

10) 강희숙·양명희·박동근(2012:38~39)에 따르면, 해방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출생한 한국인 182,400명 이름의 어종을 각 연대별로 조사한 결과, 2000년대의 경우 남성 이름은 98.28%, 여성 이름은 95.7%가 한자어 이름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이름의 주종이 다름 아닌 한자어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름의 어종을 지역별로 보면, <표 5>에서 보듯이 담양 지역의 고유어 이름이 약간 높긴 하지만, 두 지역의 한자어 이름이 각각 93.6%, 91.5%로서 역시 한자어 이름이 대세임을 보여준다.

<표 5> 이름의 어종별 분포

구분	광주						담양					
	초등학교 (7-8세)		어린이집 (1-3세)		소계		초등학교 (7-8세)		어린이집 (1-3세)		소계	
	N	%	N	%	N	%	N	%	N	%	N	%
고유어	3	1.7	4	3.7	7	2.5	2	2.6	4	6.1	6	4.2
한자어	167	97.1	96	88.1	263	93.6	74	97.4	56	84.8	130	91.5
혼종어	1	0.6	5	4.6	6	2.1			2	3.0	2	1.4
외래어	1	0.6	4	3.7	5	1.8			4	6.1	4	2.8
계	172	100	109	100	281	100	76	100	66	100	142	100.

한편, 이름의 작명 시기를 묻는 <문항 4>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작명 시기(학교 급별)

구분	초등학교(7-8세)		어린이집(1-3세)		계	
	N	%	N	%	N	%
임신 전	11	4.4	8	4.6	19	4.5
임신 중	31	12.5	32	18.3	63	14.9
출산 후	203	81.9	133	76.0	336	79.4
기타	3	1.2	2	1.1	5	1.2
계	248	100	175	100	423	100

11) 다만, 본 연구의 표본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다, 자료 수집이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기독교 관련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보니 외래어나 혼종어 이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외래어 이름으로는 ‘요셉 요셉, 마리아, 실라’와 같은 성경의 인물명이거나 ‘호산, 노엘’ 등의 성경 관련 이름이 많았으며, 혼종어 또한 ‘여은(여호와와 은혜), 예람(예수님의 사람), 예찬(예수님 찬양), 하준(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등 기독교와 관련된 이름이 대부분이다.

위의 표를 보면 자녀의 이름을 짓는 시기는 ‘출산 후’ 79.4%, ‘임신 중’ 14.9%, ‘임신 전’ 4.5%, ‘기타’ 1.2%¹²⁾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자녀의 본이름은 세상에 태어난 후에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신 중에 이름을 짓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를 갖기 전에 미리 이름부터 지어 놓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작명 시기의 순서는 지역이나 학교 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작명 시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한 가지 발견되는데, 다음 <표 7>에서 보듯이, 임신 중에 작명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남자 아이들의 경우 여자 아이들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7> 작명 시기(성별)

구분	남성		여성		계	
	N	%	N	%	N	%
임신 전	8	4.0	11	5.0	19	4.5
임신 중	37	18.3	26	11.8	63	14.9
출산 후	156	77.2	180	81.4	336	79.4
기타	1	0.5	4	1.8	5	1.2
Total	202	100.0	221	100.0	423	10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임신 중인 상태에서 작명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남자 아이가 18.3%, 여자 아이가 11.8%로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은 아마도 태아가 남자아이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 이름부터 지어놓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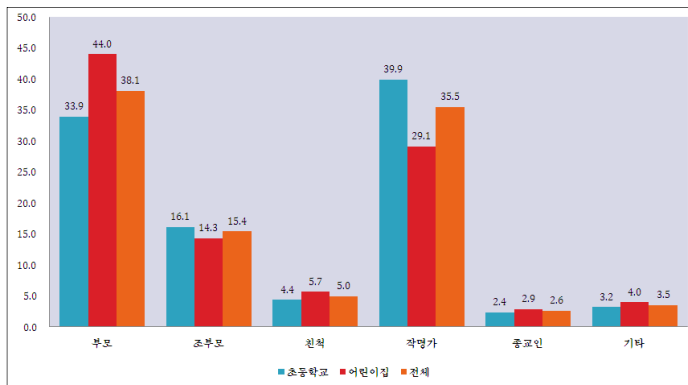
한편, 이름의 작명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항 5>에 대한 응답 결과, ‘부모(38.1%)>작명가(35.5%)>조부모(15.4%)’의 순서를 보임으로써, 부모에 의한 작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작명자의 순위는 학교 급별로 차이를 보인다. 즉,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보다 작

12)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의 시기는 개명을 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13) 법적으로는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임신 4개월 이후부터 초음파 사진 등을 통해 육안으로도 일정한 성정이 확인된다고 한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걸쳐 대개의 부모들이 태아의 성별을 짐작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명가에 의해 작명이 이루어지는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어린이집 유아의 경우에는 작명가보다 부모가 이름을 짓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은 작명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학교 급별 통계 결과이다.

<표 8> 작명자의 유형 및 분포

구분	초등학교(7-8세)		어린이집(1-3세)		계	
	N	%	N	%	N	%
부모	84	33.9	77	44.0	161	38.1
조부모	40	16.1	25	14.3	65	15.4
친척	11	4.4	10	5.7	21	5.0
작명가	99	39.9	51	29.1	150	35.5
종교인	6	2.4	5	2.9	11	2.6
기타	8	3.2	7	4.0	15	3.5
계	248	100.0	175	100.0	423	100.0



[그림 2] 작명자의 유형 및 분포

<표 8>과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경우, ‘작명가(39.9%)>부모(33.9%)>조부모(16.1%)>친척(4.4%)’ 등의 순위를 보임으로써 전문적인 작명가에 의해 작명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어린이집 유아의 경우에는 ‘부모(44.0%)>작명가(29.1%)>조부모(14.3%)>친척(5.7%)’ 등의 순위로 작명가보다 부모가 작명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최근 들어 작명의 주체가 작명가에

서 부모로 바뀌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⁴⁾

그렇다면, <문항 5>를 통해 확인한 작명 주체의 변화가 작명 동기를 묻는 <문항 6>의 응답 결과와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다음은 작명 동기에 대한 통계 결과이다.

<표 9> 작명 동기(학교 급별)

구분	초등학교(7-8세)		어린이집(1-3세)		계	
	N	%	N	%	N	%
사주에 맞춰	116	46.8	52	29.7	168	39.7
형제 서열에 따라	21	8.5	14	8.0	35	8.3
종교적 이유	15	6.0	17	9.7	32	7.6
뜻이 좋아서	64	25.8	63	36.0	127	30.0
부르기 좋은 소리	19	7.7	20	11.4	39	9.2
기타	13	5.2	9	5.1	22	5.2
계	248	100.0	175	100.0	423	100.0

위의 표를 보면 이름의 작명 동기가 학교 급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등학교의 경우 ‘사주에 맞춰’ 이름을 짓는 비율이 46.8%로, ‘이름에 담긴 뜻이 좋아서’ 짓게 된 비율 25.8%보다 월등히 높아 절반 가까이가 사주를 고려하여 이름을 지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 유아의 경우에는 ‘사주’(29.7%)보다는 ‘이름에 담긴 뜻이 좋아서’ 작명을 하는 비율이 36%로 나타나고 있어, 작명 동기 또한 최근 들어 그 경향성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명 동기는 작명 주체가 누구인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전문적인 작명가의 경우, 사주, 곧 개인이 출생한 연월일시의 간지에 맞춰 이름을 지음으로써 후천적인 운을 좋게 하려는 성명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작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작명자가 부모인 경우는 그러한 성명학적 원리보다는 이름에 담긴 뜻이나 소리와 같은 요인들을 더 중요시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4)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자녀의 이름 짓기가 전문적인 작명가보다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을 정확히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30대 신세대 부모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름의 작명 동기를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남자아이의 작명 동기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 반해, 여자 아이의 작명 동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우선, <표 10>을 보기로 하자.

<표 10> 작명 동기(지역별, 성별)

구분	광주						담양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N	%	N	%	N	%	N	%	N	%	N	%
사주에 맞춰	54	39.1	69	48.3	123	43.8	24	37.5	21	26.9	45	31.7
형제서열	11	8.0	9	6.3	20	7.1	5	7.8	10	12.8	15	10.6
종교적 이유	11	8.0	10	7.0	21	7.5	6	9.4	5	6.4	11	7.7
뜻이좋아서	45	32.6	40	28.0	85	30.2	19	29.7	23	29.5	42	29.6
부르기좋은소리	11	8.0	9	6.3	20	7.1	3	4.7	16	20.5	19	13.4
기타	6	4.3	6	4.2	12	4.3	7	10.9	3	3.8	10	7.0
계	138	100.0	143	100.0	281	100.0	64	100.0	78	100.0	142	100.0

여기에서 보듯이, 광주 지역 여자 아이의 경우 사주를 고려하여 이름을 짓는 비율이 48.3%로 다른 동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담양 지역의 경우에는 뜻을 고려하여 이름을 짓는 비율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소리를 고려하여 작명을 하는 비율도 광주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도시 지역에서는 여자 아이의 경우라도 작명가에 의해 이름을 짓는 경향이 높은 데 반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¹⁵⁾

이상을 통해 우리는 조사 대상 이름의 어종별 분포 및 작명 원리 등을 몇 가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종으로는 한자어 이름이 주로 나타나며, 출산 후에 부모를 비롯하여 전문적인 작명가들이 사주나 이름의 의미를 주로 고려하여 작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대체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을 토대로 다음 절에서는 본고의 주된 관심 대상인 태명의 유형 및 작명 원리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5) 서울, 광주, 목포 등 도시 지역 거주 고등학생의 작명 실태를 분석한 양명희(2012:247)에서도 전문적인 작명가에 의해 작명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여학생 16.1%, 남학생 14.6%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3.2. 태명의 유형 및 작명 원리

태명의 유형 및 작명 원리와 관련해서는 태명 보유 유무를 비롯하여 태명의 유형 및 의미, 작명 시기, 작명자, 작명 동기, 본명과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문항 7>을 통해 확인한 태명 보유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태명 보유 현황¹⁶⁾

구분	초등학교(7-8세)		어린이집(1-3세)		계	
	N	%	N	%	N	%
있음	108	43.5	133	76.9	241	57.2
없음	140	56.5	40	23.1	180	42.8
계	248	100.0	173	100.0	421	100.0

위의 표를 통하여 우리는 전체 조사대상자 421명 가운데 241명, 곧 57.2%의 조사대상자가 태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명 보유 현황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아동은 43.5%, 어린이집 유아는 76.9%의 비율로 태명을 가지고 있어, 나이가 어릴수록 태명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출생한 2005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절반이 안 되는 43.5%만이 태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하여,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유아들은 76.9%가 태명을 가지고 있어, 최근 몇 년 사이에 태명을 짓는 풍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표 11>에서 제시한 태명 보유 현황을 조사 지점별로 살펴보면 어떠할까? 다음은 태명 보유 현황을 조사지점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16) 조사대상자 423명 가운데 2명이 태명 보유 유무에 답을 하지 않은 결과, 2명을 제외한 421명의 응답 결과를 통계 처리하였음.

<표 12> 조사지점별 태명 보유 현황

구분	광주						담양					
	초등학교 (7-8세)		어린이집 (1-3세)		소계		초등학교 (7-8세)		어린이집 (1-3세)		계	
	N	%	N	%	N	%	N	%	N	%	N	%
유	77	44.8	81	75.0	158	56.4	31	40.8	52	80.0	83	58.9
무	95	55.2	27	25.0	122	43.6	45	59.2	13	20.0	58	41.1
계	172	100.0	108	100.0	280	100.0	76	100.0	65	100.0	141	100.0

위의 표를 보면, 광주 지역은 초등학교 44.8%, 어린이집 75.0%, 담양 지역은 초등학교 40.8%, 어린이집 80.0%가 태명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고가 전제한 가설, 곧 태명이 대도시에서부터 시작되어 인근의 소도시나 읍면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리라는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초등학생의 경우 각각 44.8%와 40.8%로서 광주 지역의 태명 보유율이 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유아만을 놓고 보면, 75.0%, 80.0%로 대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에서 태명을 보유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오늘날 태명이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한편,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태명 보유 여부가 보호자의 연령 및 직업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태명 보유 상관관계

구분	부 연령	모 연령	부 직업	모 직업
r	0.310	0.288	-0.035	-0.024
p	0.000	0.000	0.473	0.619

위의 표에 제시된 상관 계수(r)과 유의도(p)에 따르면, 부모의 연령에 따른 유의도가 0.000으로서 'p<0.05'를 충족하므로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태명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모의 직업은 그러한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태명의 어종별 분포는 어떠할까? 다음은 조사 결과 확인된 태명의 어종별 분포이다.

<표 14> 태명의 어종별 분포

구분	초등학교(7-8세)		어린이집(1-3세)		계	
	N	%	N	%	N	%
고유어	54	51.9	70	53.4	124	52.8
한자어	22	21.2	37	28.2	59	25.1
혼종어	24	23.1	21	16.0	45	19.1
외래어	4	3.8	3	2.4	7	3.0
계	104	100	131	100	235	100

위의 표를 보면, 태명은 고유어가 5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한자어 25.1%, 혼종어 19.1%, 외래어 3.0%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확인한 대로, 본명의 어종은 한자어가 92.9%, 고유어가 3.1%로서 한자어 이름이 대세인 것과는 달리, 태명은 고유어가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바, 태명과 본명이 어종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혼종어 태명은 예컨대 ‘건강이, 곁둥이, 광복이, 귀똥이, 긍정이, 또복이, 만복이, 만원이, 복덩이, 복둥이, 복둥이, 순돌이, 순박이, 총총이, 행복이’ 등 다수가 ‘X+이’의 구조를 가진 것들로서, 일반인들이 이러한 형태를 대부분 고유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태명은 고유어로 짓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할 것이다.

태명의 유형은 그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바, 다음은 태명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는 <문항 8>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토대로 태명을 분류한 것이다.

(2) 태명의 유형

ㄱ. 태어날 아기의 행복과 건강 등을 기원:

예. 복덩이/복둥이/복둥이/복이/또복이/만복이/복순/복실이, 튼튼이/튼순이, 건강/건강이/강, 도담/도담이, 딸똥이/똥이, 총명, 야물이, 슬기, 사랑/사랑이, 행복/행복이, 긍정이, 동그리, 반짝이, 꿈이, 평강, 샤넬, 하늬 등.

ㄴ. 좋아하는 자연물 또는 이미지:

예. 강, 가람, 바다, 별/별이, 태양/태양이, 산, 숲, 하늘, 해바라기, 호박이 등.

ㄷ. 소망하는 바와 반대되는 이름:

예. 개똥이/똥강아지/귀똥이/똥이, 곱슬이 등.

ㄹ. 잉태의 기쁨: 예. 광복이, 선물, 감사 등.

- ㄱ. 태몽: 例. 함박이, 별이
- ㄴ. 태아의 모습이나 움직임:
 - 例. 콩/돌콩이/콩이/아리, 꼬맹이, 순둥이, 찐득이 등.
- ㄷ. 태아의 순조로운 성장 기원: 例. 수월이, 무럭이 등.
- ㄹ. 출생 시기: 例. 가을이, 겨울이, 눈송이, 호야/랑/어흥이, 용용 등.
- ㅁ. 첫째나 둘째의 이름이나 형제간의 서열: 例. 은지, 두리, 막둥이 등.
- ㅂ. 좋아하는 인물상 및 인물:
 - 例. 장군/장군이, 공주, 다윗, 단군, 무진, 묘힐, 사무엘, 영웅, 정지영 등.
- ㅅ. 부모 이름의 이니셜: 例. 유곤, 우동 등.

위의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태명의 유형은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2ㄱ)은 아기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태명으로, 아기로 하여금 귀한 사람이 되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똑똑하며,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 등을 담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반짝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을, ‘꿈이’는 꿈 많은 사람이, ‘샤넬’은 이러한 브랜드와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라는 뜻을 담고 있다.

태명의 두 번째 유형은 좋아하는 자연물 또는 이미지를 담은 (2ㄴ)의 예들인데, 이러한 예들은 모두 아기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담은 것이라는 점에서 (2ㄱ)과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다만, 이러한 태명들은 모두 부모가 선호하는 자연물의 특징 또는 이미지를 담은 것들로서 ‘강/가람, 바다, 하늘, 산, 숲, 별/별이, 태양/태양이’ 처럼 강이나 바다, 산, 소나무, 별, 태양 등과 같은 자연물의 속성 또는 상징적 이미지를 닮거나, ‘해바라기, 호박이’처럼 높은 곳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나 둥글둥글 호박처럼 원만한 성격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만든 태명이다.

한편, (2ㄷ)의 ‘개똥이/똥강아지/귀똥이/똥이’와 ‘곱슬이’는 태명을 천하게 짓거나 바라는 바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짓게 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모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똥이/똥강아지/귀똥이/똥이’는 천한 이름을 태명으로 택함으로써 귀한 사람이 되어 달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고, ‘곱슬이’는 천가가 모두 곱슬머리라서 곱슬머리가 되지 말라는 뜻에서 지은 태명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태명은 액땀을 바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천한 이름을 지었던 <표 1>의 ‘아명’과 작명 원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태명이 전통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인 ‘아명’의 특성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ㄹ)은 잉태를 하게 된 기쁨을 반영한 것으로서, ‘광복이’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만큼이나 큰 기쁨이었음을 반영한 태명이고, 아이

를 갖게 된 것이 부부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어서, 또 정말 감사한 일이어서 ‘선물’과 ‘감사’라는 태명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태명 가운데는 부모나 주변 사람이 꾸 태몽(胎夢)과 관련한 것도 있고, 초음파 사진을 통해 본 태아의 모습이나 태동의 모습을 반영한 것도 있다. (2ㄱ)의 ‘함박이, 별이’는 함박눈이 내리는 꿈을,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꿈을 각각 태몽으로 꾸 결과 지어진 태명이고, (2ㄴ)의 ‘콩/돌콩이/콩이/아리’¹⁷⁾와 ‘꼬맹이’는 태아의 모습이 콩알처럼 또는 꼬맹이처럼 작다는 뜻에서 지은 태명이다. 또한 ‘순둥이’는 태아가 지나친 태동도 없이 아주 순하다는 뜻에서 만든 것이고, ‘찐득이’는 엄마 배 속에 착 달라붙어 있다는 뜻에서 지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2ㄷ)은 태아의 순조로운 성장을 기원하는 뜻에서 지은 것으로, ‘수월이’는 태아가 큰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자라기를, ‘무럭이’는 그저 무럭무럭 잘 커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은 것이고, (2ㄹ)의 예들은 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은 것이다. 출생 시기는 다시 계절과 출생연도의 간지(干支)를 고려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2ㄹ)의 사례를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3) ㄱ. 출생 예정 시기: 가을이, 겨울이, 눈송이
 ㄴ. 출생 예정 연도 간지: 호야/랑/어흥이, 용용

이러한 예들 가운데 (3ㄱ)의 ‘가을이’는 가을에, ‘겨울이, 눈송이’는 겨울에 태어난 아기의 태명이고, (3ㄴ)의 ‘호야/랑/어흥이’는 호랑이해에, ‘용용’은 용의 해에 태어난 아기의 태명이다.

태명 가운데는 위 형제의 이름이나 형제간의 서열을 고려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즉, (2ㄷ)의 ‘은지’는 첫째아이가 ‘은’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지은 태명이고, ‘두리, 막둥이’는 각각 둘째아이, 막내라는 의미로 지은 것이다.

(2ㄷ)의 예들은 좋아하는 인물상이나 인물이 태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군이나 공주, 영웅과 같은 인물상을 고려하거나 ‘단군’과 같은 우리 민족의 시조, 성경 속의 인물인 다윗이나 ‘사무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인 ‘무진’이나 ‘묘힐’ 또는 부모가 좋아하는 아나운서의 이름 ‘정지영’이 각각 태명으로 선택되기도 하였다.

17) ‘아리’는 ‘콩알’의 두 번째 음절 ‘알’에 접미사 ‘-이’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알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2ㄱ)의 ‘유곤, 우동’은 부모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아기의 태명을 짓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엄마아빠의 이름 첫 글자를 각각 따서 지은 것이다.

이상을 통하여 확인한 태명의 유형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1ㄱ)의 유형에 해당하는 ‘복덩이’이다. ‘복덩이’ 외에도 ‘복둥이/복둥이/복이/또복이/만복이/복순/복실이’ 등 ‘복덩이’와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 태명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아기로 하여금 귀한 사람 또는 복을 많이 타고나 행복한 사람¹⁸⁾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염원에 의해 작명된 태명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복덩이’ 다음으로는 ‘튼튼이’, ‘똥똥이’, ‘건강’, ‘사랑’, ‘행복’ 등의 태명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바, 건강하면서도 총명한,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부모의 염원을 담은 태명이 가장 자주 출현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¹⁹⁾ 다음은 본 연구 결과 확인된 태명 가운데 3회 이상의 빈도를 지닌 태명을 빈도순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15> 태명의 출현 빈도

순위	태명	빈도
1	복덩이	11
2	튼튼이	9
3	똥똥이	7
3	건강	7
3	사랑	7
6	행복	6
7	이쁜이	4
7	별	4

18) ‘복덩이’는 매우 귀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복둥이/복둥이’는 복을 타고나 행복하게 자라는 어린아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9) 한 육아 포털사이트가 지난 2007년 공개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조사된 1700여 개의 태명 가운데 1위는 ‘사랑이’, 2위는 ‘튼튼이’, 3위는 ‘복덩이’, 4위는 ‘똥똥이’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위를 차지한 ‘사랑이’를 제외한다면, ‘튼튼이, 복덩이, 똥똥이’가 본 연구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면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태명들이 가장 보편적인 태명의 유형에 속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7	별이	4
7	소망	4
7	장군	4
12	강	3
12	누리	3
12	바다	3
12	태양	3
12	희망	3
12	총명	3
12	뜰이	3
12	복동이	3

위의 표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3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태명은 모두 19개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2회 이하, 또는 1회만 출현한 태명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신세대 부모의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는 태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은 (2)에서 제시되지 않은, 비교적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태명의 예이다.

- (4) 뽀강(예쁜 강아지), 예랑(예쁘고 사랑스러움), 다부(多富), 지오(대지의 근원), 푸름이(푸른 색상의 긍정적 이미지), 시연(아름다운 아이), 겹둥이(동생) 등.

앞에서 제시한 대로 본명, 곧 사람의 본이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출생 후에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배냇이름’ 또는 ‘태명’이라는 용어 그 자체가 의미하듯, 태명은 주로 임신 초기나 중기에 지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다음은 태명의 작명 시기를 묻는 <문항 8>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16> 태명 작명 시기(학교 급별)

구분	초등학교 (7-8세)		어린이집 (1-3세)		합계	
	N	%	N	%	N	%
임신 초기	62	57.6	82	59.9	144	58.8
임신 중기	44	41.2	50	39.1	94	40.1
임신 말기	2	1.2	1	0.9	3	1.1
계	108	100	133	99.9	241	100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태명은 임신 초기²⁰⁾에 작명되는 경우가 58.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그 다음은 임신 중기로서 40.1%, 가장 낮은 경우가 임신 말기로 1.1%의 빈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통계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태명은 대부분 임신 초기나 중기에 작명이 이루어지되, 임신 초기에 지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학교 급별로도 큰 차이가 없어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태명의 작명을 고려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태명의 작명 시기를 조사 지점별로 살펴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표 16>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광주 지역의 경우 임신 초기에 작명을 하는 비율이 62.6%로, 36.2%의 비율을 보이는 임신 중기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담양 지역은 각각 55.5%, 44.1%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바, 대도시 지역에서 임신 초기에 태명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7> 태명 작명 시기(조사 지점별)

구분	광주						담양					
	초등학교 (7-8세)		어린이집 (1-3세)		소계		초등학교 (7-8세)		어린이집 (1-3세)		소계	
	N	%	N	%	N	%	N	%	N	%	N	%
임신 초기	44	57.2	55	67.9	99	62.6	18	58.1	27	51.9	45	55.0

20) 임신 초기는 일반적으로 1개월~3개월을, 임신 중기는 4개월~6개월, 임신 말기는 7개월~9개월 동안을 말한다.

임신 중기	31	40.3	26	32.0	57	36.2	13	42.0	24	46.1	37	44.1
임신 말기	2	2.5	0	0.0	2	1.2	0	0.0	1	1.9	1	0.9
총계	77	100	81	100	158	100	31	100	52	100	83	100

한편, 본명의 경우는 작명 전문가가 짓거나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작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반면, 태명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부모에 의해 작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인데, 다음은 작명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문항 10>에 대한 응답을 통계 처리한 결과이다.

<표 18> 태명 작명자의 유형 및 분포(학교 급별)

구분	초등학교 (7-8세)		어린이집 (1-3세)		계	
	N	%	N	%	N	%
엄마	43	42.2	52	41.9	95	42.0
아빠	19	18.6	34	27.4	53	23.5
엄마아빠	29	28.4	31	25.0	60	26.5
형제	4	3.9			4	1.8
조부모	3	2.9			3	1.3
친척	1	0.9	3	2.4	4	1.8
지인	3	2.9	4	3.2	7	3.1
계	102	100.0	124	100.0	226	100.0

위의 표를 보면, 태명의 작명자는 아기 엄마 42.0%, 엄마아빠가 함께 의논하여 정하는 경우 26.5%, 아기 아빠가 정하는 경우는 23.5%를 차지하는바, 결과적으로 부모에 의해 작명되는 비율이 92.0%로서 본이름과는 달리 태명은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학교 급별로도 큰 차이가 없어 태명의 작명이 그동안 다름 아닌 부모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흥미로운 것은 어린이집 유아의 경우에는 형제나 조부모에 의해 태명이 지어지는 사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위의 형제가 나이가 어리거나 위로 형제가 없는 첫 아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나 태명의 작명이 워낙에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조부모나 친척의 경우도 대부분 할머니나 외할머니, 이모 등 여성들이고, 지인의 경우도 엄마 친구인 경우가 많아서 태명이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항 11>은 태명을 짓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개방형으로 물은 것인데, 응답 결과 확인된 작명 동기를 빈도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5) ㄱ. 단순히 아가라고 부르기보다는 다른 아기들과 구별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함.(58회)
- ㄴ. 많은 육아서에서 배 속의 아기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해서 아기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²¹⁾ 이름이 필요했음.(42회)
- ㄷ. 주변에서들 태명이 뭐냐고 묻거나 지어야 한다는 권유를 하는 등 태명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음.(41회)
- ㄹ. 태교를 위해 구체적인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21회)
- ㅁ. 이름을 불러주다 보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함.(17회)
- ㅂ. 태아도 생명체이고 인격체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이 필요하다고 봄.(14회)
- ㅅ. 아이와의 교감을 위해 이름이 필요하였음.(9회)
- ㅇ. 이름을 불러주면 아기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보았음.(4회)
- ㅈ. 아기를 갖게 된 기쁨과 행복감을 아기에게 전하고 싶었음.(3회)

이상과 같은 태명의 작명 동기를 통하여 태명이 어떠한 의도 아래 지어지고 있는가와 함께 태명을 짓는 것을 너도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명을 사용하는 부모의 의식 속에 태아도 인격을 갖춘 생명체라는 인식하에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를 나누려는 생각이 깃들어 있는 한편으로, 자주 이름을 불러주다 보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식 또한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항 12>은 태명이 본명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태담’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배 속 아기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최근 들어 ‘태담’이라는 단어가 새로이 등장하여 자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9> 태명과 본명과의 관련 여부(학교 급별)

구분	초등학교(7-8세)		어린이집(1-3세)		계	
	N	%	N	%	N	%
있다	11	10.5	13	10.1	24	10.3
없다	94	89.5	116	89.9	210	89.7
계	105	100.0	129	100.0	234	100.0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태명과 본명과의 관련성은 10.3% 정도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이름 10개 가운데 하나는 본명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명은 단순히 배넛이름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이름에 끼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태명과 본명의 이러한 관련성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없어 광주 지역과 담양 지역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임이 특징이다.

<표 20> 태명과 본명과의 관련 여부(지역별)

구분	광주						담양					
	초등학교(7-8세)		어린이집(1-3세)		계		초등학교(7-8세)		어린이집(1-3세)		계	
	N	%	N	%	N	%	N	%	N	%	N	%
있다	7	9.5	8	10.0	15	9.7	4	12.9	5	10.2	9	11.3
없다	67	90.5	72	90.0	139	90.3	27	87.1	44	89.8	71	88.8
계	74	100.0	80	100.0	154	100.0	31	100.0	49	100.0	80	100.0

4. 태명에 대한 부모의 언어 태도

주지하는 대로 언어 태도란 화자들이 갖는 언어나 그 변이형, 또는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갖는 견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언어 태도는 일정한 언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²²⁾ 본 연구에서는 태명의 필요성과 이점

22) 주지하는 바와 같이, Fasold(1984:148)에서는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를 언어 자체에 대한 태도, 특정 언어(또는) 방언을 구사하는 화자의 태도, 언어와 관련이 있는 행위(언어

에 대한 부모의 언어 태도를 묻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태명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 13>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1> 태명의 필요성(학교 급별)

구분	초등학교(7-8세)		어린이집(1-3세)		계	
	N	%	N	%	N	%
꼭 필요	65	26.2	65	38.2	130	31.1
조금 필요	83	33.5	65	38.2	148	35.4
없어도 그만	69	27.8	33	19.4	102	24.4
불필요	6	2.4	2	1.2	8	1.9
잘 모르겠음	25	10.1	5	2.9	30	7.2
계	248	100.0	170	100.0	418	100.0

위의 표를 보면, 태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꼭 필요하다’에 31.1%가, ‘조금 필요하다’에 35.4%가 응답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66.5%의 조사대상자가 태명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명의 필요성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부모의 경우는 59.7%만 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어린이집 아동의 부모는 7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태명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태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지역 간에 그다지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태명의 보급이 보편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다음은 태명의 필요성에서 응답 결과를 조사 지점별로 제시한 것이다.

관리, 언어 계획)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누고, 사람들의 언어 태도를 통해 그것과 관련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22> 태명의 필요성(조사 지점별)

구분	광주						담양					
	초등학교 (7-8세)		어린이집 (1-3세)		계		초등학교 (7-8세)		어린이집 (1-3세)		계	
	N	%	N	%	N	%	N	%	N	%	N	%
꼭 필요	46	26.7	44	41.9	90	32.5	19	25.0	21	32.3	40	28.4
조금 필요	57	33.1	39	37.1	96	34.7	26	34.2	26	40.0	52	36.9
없어도 그만	48	27.9	18	17.1	66	23.8	21	27.6	15	23.1	36	25.5
불필요	5	2.9	2	1.9	7	2.5	1	1.3	0	0.0	1	0.7
잘 모르겠음	16	9.3	2	1.9	18	6.5	9	11.8	3	4.6	12	8.5
계	172	100	105	100	277	100	76	100	65	100	141	100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광주 지역의 경우는 67.2%가, 담양 지역의 경우는 65.3%가 어떤 식으로든 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 간의 인식 차이가 별반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판단하건대, 태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은 태명이 갖는 이점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태명의 이점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항 14>의 응답 결과를 빈도가 높은 순서로 제시한 것이다.

- (6) ㄱ. 단순히 아가라고 하기보다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아기를 부를 수 있어서 좋았다. (60회)
- ㄴ. 아기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29회)
- ㄷ. 항상 생각하면서 엄마아빠의 생각을 전함으로써 대화가 가능하였다. (26회)
- ㄹ. 아기에 대한 친밀감 또는 유대감이 깊어졌다. (25회)
- ㅁ. 아기에 대한 엄마아빠의 기대를 전달하고 태교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회)
- ㅂ. 아기와 교감(交感)을 느낄 수 있었다. (16회)
- ㅅ. 아기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깊어졌다. (14회)
- ㅇ.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복감을 갖도록 해 주었다. (7회)
- ㅈ. 태아를 인격을 갖춘 하나의 개체로, 또는 생명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회)

- 츠. 아기를 새 식구로, 또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3회)
- 키. 아기에게 추억 만들기가 가능하다.(2회)

이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대로, 태명은 단순히 이름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부모로 하여금 아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생각을 주고받는 대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새 생명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태교에도 도움을 주며, 아기와의 교감 및 애착과 애정을 깊게 해 주면서, 임신부로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복감을 더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와 군 단위인 전남 담양 지역 초등학교 1학년 아동 248명과 어린이집 유아 175명 등 모두 42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어 이름 짓기의 새로운 풍속도로 등장하고 있는 태명의 작명 실태 및 확산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태명의 유형 및 작명 원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표본의 본명(본 이름)의 유형 및 작명 원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본명은 한자어 이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 비해 태명의 경우는 ‘복덩이, 튼튼이, 뽕뽕이’ 등 순수한 한자어가 아니거나 고유어가 대부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명은 대부분, 세상에 태어난 후 부모를 비롯하여 전문적인 작명가들이 사주나 이름의 의미를 주로 고려하여 작명을 하게 되는 데 반해, 태명은 임신 초기나 중기에 전문적인 작명가가 아닌 부모에 의해 작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태명이 어느 정도나 확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태명 보유 현황을 학교 급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43.5%, 어린이집 유아는 76.9%의 비율로 태명을 가지고 있는바, 최근 몇 년 사이에 태명을 짓는 풍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러한 확산이 대도시와 군 단위 지역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태명의 작명 동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태명을 사용하는 부모의 의식 속에

태아도 인격을 갖춘 생명체라는 인식하에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를 나누려는 생각이 깃들어 있는 한편으로, 자주 이름을 불러주다 보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바라는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개입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식하에 태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5%로,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응답률이 확인되었다.

또한, 태명은 단순히 이름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부모로 하여금 아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생각을 주고받는 대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새 생명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태교에도 도움을 주며, 아기와의 교감 및 애착과 애정을 깊게 해 주면서, 임신부로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복감을 더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전통사회에서 존재하였던 다양한 유형의 이름들과도 구별되는 새로운 한국인 이름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태명의 작명 실태 및 확산 양상이 어느 정도는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 대상 표본 및 조사 지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제약이 없지 않은바, 앞으로 좀 더 폭넓은 자료 조사 및 조사 지점의 확대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희숙·박동근·양명희. 2011. “한국인 인명의 특성 및 언어 태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사회언어학회 2011년 가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강희숙·양명희·박동근 (2012). “해방 이후 한국인 이름의 특성 및 변천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어문연구* 73. 33-60. 어문연구학회.
- 박현순 (1991). “이름의 종류.” *새국어생활* 1-1. 39-56. 국립국어연구원.
- 양명희 (2012). “인명의 특징과 그에 대한 언어 태도 연구-서울, 광주, 목포, 제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5. 239-266. 한국어학회.
- Fasold, R. W. (1984).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 Oxford: Blackwell.
- Milroy, J. (1992).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Oxford: Blackwell.
- Weinreich, Labov & Herzog (1968)

강희숙

hskang@chosun.ac.kr

논문 접수일: 2012.10.10.

논문 심사일: 2012.10.15.~2012.11.10.

게재 확정일: 2012.11.15.